

탈근대주의 시대의 사회사업실천

고 미 영(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개 요

현재 학문의 각 분야에서는 탈근대주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사업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탈근대주의 사상은 이제까지 익숙해져 왔던 근대주의 사상의 가정들과 전제들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와서 뚜렷한 인식론의 전환을 보여줌으로써 임상 실천 분야에도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논문은 탈근대주의 사상이 가지는 특징을 지식과 언어에 대한 새로운 관점, 다양성의 인식 면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상들이 사회사업 실천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실천의 가장 주요한 기반을 이루는 인간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탈근대주의 사상에서 실천가는 내담자를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며 자신과 함께 현실을 구성해 나아가며 동일한 언어적 현실을 공유하는 협력자로 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의 사회사업 실천에 있어서 탈근대주의 사상의 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I. 서 론

어느 때부터 정확하게 탈근대주의 시대가 도립 되었는지 알기는 어렵다. 처음으로 이

Postmodern 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철학적 개념에서라고 알려져 있고 건축 분야를 시초로 70년대 이후로 이 명칭은 공식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그 후 1980년대의 후반에 이르러서는 문화인류학, 사회학, 언어학, 역사학 등에 먼저 나타나기 시작한 탈근대주의 물질이 임상 실천 분야인 심리학, 의학, 가족 치료 및 사회사업 실천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한 시대의 사상의 변천은 눈에 띄게 한 번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그 전 시대의 사상과 공존하면서 서서히 그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기 마련이다. 더욱이 서구의 근대주의 사상의 반동으로 일어난 탈근대주의 사상은 근대주의에 대한 심도 깊은 비판을 가함으로써 근대주의를 옹호하려고 하는 세력의 심한 반발을 받고 있다. 그러나 탈근대주의를 주창하는 신봉자들은 스스로를 근대주의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확고히 다져 나아가고 있다.

사회사업 실천은 그 지식의 기반을 쌓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시대의 흐름과 사상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또한 인접 학문들의 이론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아 왔다. 이제 서서히 타학문과 마찬가지로 근대주의적 합리성과 과학적 경험론을 이상으로 추구해왔던 사회사업의 실천 방법론들이 탈근대주의의 도전을 강하게 받게 되었으며 이것은 시대의 흐름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이 논문은 탈근대주의 사상의 특징과 문제 제기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사회사업 실천 방법론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적 상황에서 과연 탈근대주의적 사상에 대한 논의와 도입이 가능한지를 타진해 보고자 한다. 그를 위해서 먼저 근대주의의 기본적 가정들과 전제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II. 근대주의의 표현

계몽사상을 바탕으로 시작된 근대주의의 자연관은 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았던 중세적 자연관을 무너뜨리며 시작되었다. 근대주의는 이 세계를 동일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동일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수학적 자연관으로 그 기본 명제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과학이라는 신화를 탄생시킬 수 있게 되었다(손규태, 1996). 모든 현상을 수학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지식의 대상이 되는 자연과 세계를 경험론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에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철학적으로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봉과 합리성을 주장하게 되었고, 인식론적으로는 진리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인간 중심주의의 가치 체계를 열어 나아갔다. 이성의 규준에 맞춘 합리적인 사회 건설을 목표로 과학적 진보와 기술의 증가에 힘입어 인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고 합목적적인 시대의 사상을 펼쳐나갔다. 지식은 경험론적으로 검증된 지식을 가장 우수한 지식으로 받아들인 만큼 전문직을 형성하는 중요한 한 요건은 체계적인 지식과 방법론의 소유였다. 이 경험론적 지식은 과학적 용어들로 채워져 있으며 객관적 관찰과 정확성에 근거하여 생산되도록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Hoshmand & Polkinghorn, 1992: 56).

이러한 근대주의 사상이 매우 열정적으로 추구하였던 것은 본질에 대한 조명이란 할 수 있다(Gergen & Kaye, 1992: 168). 자연과 사회의 모든 현상에는 그 본질적 요소가 내재하는 것이며 이것은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밝혀질 수 있다는 신념이 근대주의 사상의 기본 전제이다. 이러한 신념이 정신 의학이나 사회 사업 실천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본질에 대한 논의는 모든 사회적 현상에서 내면성을 밝히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내면적 법칙에 대한 탐구와 인과론적 원리의 적용을 추구하게 하였다. 초기 사회 사업의 실천 모델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는 진단에 비중을 둔 의학적 모델을 발달시키게 된 것은 이러한 영향 때문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근대주의는 진리에 대한 확고하고 단호한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 언어는 경험적 세계를 그대로 표현해주는 충실한 도구로서,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거울과 같이 비추어 주도록 될 수 있으면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정확성이 언어적 표현에서 요구되었다. 또한 전문인들간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전문 용어들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수학적이거나 추상적인 용어가 가장 우수하고 유용한 언어로 받아들여지며 과학자들의 언어로 된 설명은 절대적 신뢰를 받게 되었다. 각 전문직들은 이러한 과학적 분위기에서 생산된 용어들로 그 전문직을 표현하고 싶어한다. 사회 사업 실천의 대부분의 전문적 용어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산되고 때로는 빌려져왔다. 그 한 예로 사정, 환경 속의 개인, 관계, 과정, 개입이라는 전문 용어들은 사회 사업 전문직의 이론적 유산으로써 일반사회사업의 주요 주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Johnson, 1995: 34).

결론적으로 근대주의는 인류 문화와 역사에 큰 진보를 가져다준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이성적 인간에 대한 신념과 사상으로 사회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보시켜 나아가고자 한 위대한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목적을 성취했다고 오늘날에 평가할 수 있는가? 과학의 신화 밑에서 양산된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로

의 전환을 맞이하는 많은 이들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사업 현장에서는 과학적으로 생산된 이론과 실천 사이의 깊은 괴리가 나타나며 학문과 현장의 분리가 사회사업이라는 전문직 안에 생겨났다(Albee, 1970). 따라서 실천 현장에서 외면하는 지식의 양산으로 실제적인 내담자의 욕구와 문제들을 얼마나 밝혀내고 해결해 왔는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의문들은 탈근대주의 시대의 도래를 재촉하며 그 사상 안에서 서서히 자리잡아가며 탈근대주의자들의 특정한 입장을 형성해 주었다.

Ⅲ. 탈근대주의의 특징

1. 지식에 대한 가정의 도전

근대주의에서 지식이란 진리라고 믿어지는 일종의 검증된 사실이다. 따라서 지식은 경험적인 언어로 객관적인 지표들을 사용하여 본질적인 요소들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Pardeck, Murphy, & Choi, 1994: 343). 모든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사회 현상 역시 연구자들의 대상이다. 객관적 관찰을 통하여 사회 현상은 그 나름대로의 실재 혹은 진리를 드러낸다고 믿어진다.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주관적 견해로 인해서 그 실재를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밝혀진 사실들은 따라서 절대적인 객관성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탈근대주의에 와서는 지식에 대한 이런 회화적 비유를 거부하고 구성주의적 비유를 선호한다(Lyotard, 1984). 이에 따라 실재라는 것이 사회 현상에 존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크게 전환시켰다.

먼저 인간과 무관하게 사회 현상의 실재가 존재할 수 있는가에 강한 의구심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본질 혹은 사실이나를 밝혀 가는 과정에서 사실이 사실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인간적 해석과 중재가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본질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현상의 본질을 파헤치는 데 관여하는 인간의 역할을 결코 작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현상인 정신 병리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지표들에 의해 객관적 사실로 규명될 수 있는가? 탈근대주의 사상의 기초를 놓아준 프랑스 역사철학자 푸코(Foucault)는 단지

만연되어온 관례들에 의해서 사실과 허위, 진리와 오류, 정상과 비정상이 갈라지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Foucault, 1989). 여기서 그가 지적하고자 했던 바는 어떻게 사람들이 혹은 지역 사회가 언어의 사용을 통하여 정상 혹은 진리를 규정해 나아가는가를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신 병리는 자동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들이 가리키고 있는 사실이라기 보다는 언어적으로 설정된 구분이나 습관이라고 보았다. 결국 인간적인 중재가 정신 병리를 정의하는 데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사실이나 진리는 그것을 진리가 되게 하는 인간 사회의 언어적 관례에 의해서 의심받지 않고 사실이나 진리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탈근대주의 사상은 지식의 절대적 객관성에 의문을 던지며 언어적 중재와 관례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과학적 지식이나 예전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간주되던 것의 우위성은 어떻게 세계가 돌아가는가에 대한 공공의 신념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언어적 지식에 자리를 내어주었다(Lax, 1992: 68-69).

2 언어적 민감성

탈근대사상이 가장 주목하는 바는 언어에 대한 새로운 비평이다. 어느 면에서 탈근대사상을 언어학적 이론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 이론들은 전통적인 언어의 사용에 적용되는 가정들에 상당한 교정을 요구한다. 언어는 더 이상 이 세계의 현실에 대한 거울과 같은 반사는 아니다(Gergen, 1991). 그것은 언어의 구성력을 무시한 지나치게 단순하고 고지식한 견해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언어는 어떤 사실을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언어를 통하여 모든 현상이 중재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단어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상호교류를 통해서 현실을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받아들여지고 처리된다(Pozatek, 1994: 399). 타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현실은 함께 구성되어져 간다.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는가는 서로가 얼마나 이 현실을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언어는 그 자체로가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또는 관계적 요소들은 함께 서로 어우러져 결속되어 언어적 현실을 구성하는 데에 그 배경이 된다. 그러므로 사회, 문화, 정치, 예술의 표현을 바탕으로 현실은 구성되어져 가며 이 과정에 언어는 이 모든 것의 중재자가 된다. 이제 더 이상 표현된 것(현실)과 그 대상과의 사이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예전처럼 객관성이나 정확성보다는 언어적인 표현 과정의 민감성이나, 적정성의 문제를 살피게 된다. 이것은 전통적인 사회사업의 실천에서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자아라는 개념은 확고 부동한 객관적 지표들이 보여주는 속성으로 받아들여왔다. 예를 들어 약한 자아는 현실에 대한 대처 기능이 부족한 지표들로 증명되어왔고 이것은 실존적인 본질 혹은 속성으로 한 개인의 내면 속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탈근대주의 자들은 이러한 자아에 대한 개념은 지나친 "본질론자"의 견해라고 본다 (Flax, 1990). 본질론의 문제는 사람들의 특성이 내면적이며 사회적으로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속성으로 보는 데 있다 (Pardeck, Murphy, & Choi, 1994: 344). 그러나 자아는 우주 공간에서 떠오른 실체가 아니라 거미줄과 같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삶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져 가는 언어 혹은 하나의 이야기이다. 결국 자아는 본질적 개념이 아니라 해석적 개념임을 탈근대주의 사상은 주장한다. 따라서 상황과 배경에 대한 민감성이 없이 올바르게 한 개인의 자아를 해석해 낼 수 없다. 자아를 본질적으로 다룰 때 어느 특수 개인을 낙인찍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에 만연된 가치를 언어적으로 집결시킨 결과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들추어내고 또한 억압되어져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탈근대주의 자들은 해체(deconstruction)의 개념을 사용한다. 해체란 원문을 분석할 때 배경에 대한 관심과 소외된 주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방법으로 주어진 그대로의 개념을 수용하지 않고 사회와 역사 정치적 맥락과 관련시켜 본문을 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문 속에 숨어있는 편견을 가려내어 그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ands & Nuccio, 1992 :491). 해체의 결과는 한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과 차이점, 내재한 애매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의 독점과 지배적 권력의 횡포에 대한 강한 도전을 던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에 대한 민감성은 전통적 관례들이 형성하고 있는 언어의 중립성과 투명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탈근대주의 사상을 발전 시켜 나아갔다.

3. 다양성의 인식

근대사상은 지식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으로 인류의 진보를 추구해왔다. 이것은 질서 정연하고 일정한 삶의 양식을 세워나아 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 삶의 양식에 대한 강요를 낳았으며 서구적인 합리성만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배타성을 만연시켰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탈근대주의 사상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삶의 형태를 인정하며 인간 경험의 풍부함과 다면성을 중요시하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운다. 보편적 진리나 구조들은 다윈의 진

리나 세계에 대한 다수의 사상들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었다 (Maturana & Varela, 1987). 따라서 지식에 대한 중앙 집권 식의 일괄된 통제와 수용을 거부하고 지역화된 지식, 특수성이 부각된 지식을 인정하기를 주장한다. 또한 일방적인 전문적 지식의 독주보다는 다양한 원천에서 함께 변증법적으로 지식을 산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다양성의 인정은 지식의 배경에 대한 관심에서도 나타난다. 추상적이고 수학적 개념들은 그 배경을 배제하거나 조작함으로써 구체적인 다양한 배경이 드러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 그러나 탈근대주의 자들은 상황적이고 구체적인 배경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과정에서 근대주의자들이 왜곡이라고 보았던 주관적, 상황적인 여러 요소들이 지식의 중심부로 자리잡게 되었고 당연히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인간의 삶은 단선적이 아닌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인 제약들과 무한한 잠재성들을 모두 포함한 다중성을 띄고 있음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IV. 탈근대주의적 사회사업 실천

1.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사업 실천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관계 서비스이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모든 실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제까지 인간을 하나의 본질적 실체로 다루어 온 사회사업 이론들은 인간을 대상화하는데 기여해 왔다. 인간은 객관적으로 관찰되고 그 속성을 파악해 낼 수 있는 존재로 보아왔다. 그리하여 인간은 내재하는 구조를 지닌 일정한 특질을 나타내는 존재로 다루어 왔다.

탈근대주의 사상에서는 이러한 인간 이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간의 삶을 구성론적으로 정의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현재도 계속 전개되고 있는 문장(text)이다. 이것은 어떤 정의나 본질론적으로 정지시킬 수 없는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인간은 특질이 구체화된 단독체가 아니며 하나의 이야기이다(Gergen, 1991). 인류문화학자 기엇츠는 인간을 자신이 만들어 낸 의미의 중요성이라는 거미줄에 지탱하여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정의하였다(Geertz, 1983). 각 개인은 내부 심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의 배경 속에서 고려되어야 할 존재이다(Lax, 1992). 내재성이 아닌 인간의 관계성이 더 인간을 잘 말해주고 있으며 해석과 통찰을 통한 이해

가 절실히 요구되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인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사실”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것은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집단의 지역적인 한계 안에 속한 것이다(Pardeck, Murphy, & Choi, 1994: 344). 사실은 제한된 해석적 영역 안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인간에 대한 근대적 이해는 서구적 사상을 수용하는 영역 내에서 통용되는 것이지 지역과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나 통하는 진리는 아니다. 엄격히 말하면 사실은 사회적 전통과 신화들, 현실에 대한 다른 가정들 안에 박혀져 있는 것이지 전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사업 실천을 위해서 실천가는 인간을 이미 규정해 놓은 속성이나 목록에 의해 정의하려 하기보다는 정확한 해석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의 세계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실천가가 인간을 다룰 때 주지해야 할 바는 인간은 의미의 창조를 통해서 그들의 세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며 이 인간 행동에 해석적인 체계를 작동시켜서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은 그들의 문화라는 것이다 (Saleebey, 1994: 352). 실천가는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쌓아 올린 삶의 세계를 떠 받히고 있는 전제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때 내담자의 삶에 성큼 다가서는 것이다. 결국 자아란 사회 상황으로부터 동떨어진 어떤 내면적 본질로부터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심상들의 세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되는 사회적으로 연결된 고리로부터 자라나는 것이다 (Rosaldo, 1984). 그러므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언어적으로 창조되고 유지되는 의미들의 거미 망을 들여다보는 것이며 이것을 만드는 데 재료를 제공하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2 문화에 대한 이해

탈근대주의 시대에 있어서 문화의 개념은 대단히 특별한 주목을 받는다. 문화란 단순한 삶의 양식이나 표현이 아니라 바로 삶의 구성물이며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데 참여하는 기술이다. 문화는 우리의 의미를 구성하는 원 재료를 제공하며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세계에 대한 감각을 갖추도록 조성해 주는 해석적 장치이다(Saleebey, 1994). 문화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조직하고 이해하는 수단이며 어떻게 이 해석적 체계를 작동시켜야 할 지를 알게 해 준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문화는 우리 안에 그 구조를 은밀히 심어왔으며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되

어버렸고 우리는 문화의 작용을 우리의 타고난 본성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탈근대주의에 와서 문화에 대한 가장 큰 관점의 변화는 문화적 결정 요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점과 문화가 우리 경험에 주는 구성적 역할을 강조하는 점이다. 각 개인의 문화 작용은 사회적이며 동시에 개인적인 것으로 확실적인 것이 아니다. 이미 사회가 제공하는 지역적,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정치 경제적 성별적 문화의 구성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의해 타인들과 관계하면서 형성된 여러 겹의 문화적 배경은 참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인간의 삶 속에 심어 놓았다. 따라서 실천가의 주관적 문화 경험이 어떻게 내담자와의 접촉에서 자극을 받고 그의 문화 경험과 충돌 또는 조화를 이룰 것인가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내담자의 이야기를 특별히 우대하거나, 소외시키거나, 실격시키는 가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의 충돌과 조정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만약에 터무니없이 내담자의 의미를 잘못 읽은 실수를 했다면 그것은 드러나지 않게 우리를 조정해 온 문화의 심각한 충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충돌을 극복하는 길은 먼저 실천가가 내담자와 상당히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쌍방의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의미와 구조를 불러내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천가와 다른 문화에 속한 내담자의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3. 문제에 대한 이해

탈근대주의 사회사업 실천가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란 문제 그 자체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란 내담자들의 삶의 배경 속에서 자라난 것으로 내담자들이 문제로 인식하고 동의한 언어적 사건 즉 그들의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문제란 그들의 삶 자체가 아니라 삶에서 읽어진 그들의 담론—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진 그들의 언어—라고 볼 수 있다. 문제가 존재하는 곳도 어떤 객관적인 사회 구조가 아니라 언어의 영역 안에 존재한다(Anderson & Goolishian., 1988). 그것은 모든 인간체계는 의미와 상호 교류하는 언어적 현실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객관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 당사자들이 그 문제에 동의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적인 언어 체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정의를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진단으로 내릴 수 없고 내담자의 서술을 전문 용어로 대체하는 행위도 받아들여 질 수 없다. 문제의 정의는 일어난 상황에 대한 해석과 의미 설정의 대화이며 참가자들 전원의 공동의 작업에 의존하게 된다.

문제를 접근할 때 그 문제를 둘러싼 배경과 주관적 경험, 그리고 그 주변에 깔린 문화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한다. 어떤 유형화된 형식에 치우치거나 특정한 이론에 의해 이미 설정된 가정에 따라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는 내담자와 상관없는 실천가가 만들어 낸 허상에 불과하다. 모든 문제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의 생성과 창조에 의해 새롭게 확장되어 갈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정해져 있는 문제란 이미 끝나 버린 이야기와 같아서 내담자의 상황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없다.

탈근대주의 사상은 목표 지향적인 근대주의 사상에 대치되는 과정 중심과 참여를 대인 서비스의 주요 방향으로 보고 있다. 다양성의 수용으로 서비스의 과제도 어떻게 내담자들이 파묻혀 있는 제한적 삶의 구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색다른 해석과 경험에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러므로 실천가들의 주요 노력은 문제 성격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보다는 문제를 둘러싼 배경에 대한 언어적 해석과 다원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여 새로운 가능성으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회사업 실천가는 자신만의 특권적 지식을 소유한 것으로 가정해서는 안되며 내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만능 해결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전문 지식의 소유와 발달은 내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는 특권을 전문가들에게 부여해 왔다. 내담자들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존하게 되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몸과 감정과 직관력으로부터 깨닫는 자기 지식을 부정하도록 배운다(Gowdy, 1994: 366). 결국 내담자들은 소외와 무기력을 경험하며 자기 정의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맹목적으로 전문가나 외부로부터 오는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타인에 의한 조종이나 억압에 쉽게 노출되면서 그들의 발언권과 권리는 전문가들에게 점차로 이양되어 버린다. 결과적으로 근대사회는 전문가들을 양산하며 그 지식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내담자들의 자기 소외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포기하게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탈근대주의 사상에서는 내담자와 실천가 사이의 동등한 협력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면서 형식적이 아닌 내용적으로 내담자들의 참여가 문제의 방향을 결정해 가도록 중용하고 있다.

4. 탈근대주의 사회사업 실천

탈근대주의 사상의 한 핵심적 사상으로 살아있는 체계는 밖으로부터 계획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하며 운명을 결정해 가는 독립적 체계라는 것이다(Maturana & Varela, 1987).

특히 인간은 예정되었거나 예상된 경로를 밟아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 실천가는 변화하는 체계 안에 속하여야 한다. 내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실천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한 내담자와 함께 실천가는 문제해결체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며 함께 창조하도록 요청 받는다(Anderson & Goolishian, 1988). 즉 체계 밖에서 조정하거나 변화를 야기 시키지 않고 한 체계 안에서 하나의 부분으로 함께 변화하며 새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실천가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자신의 문화의 투명성을 유지하며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사용하는 해석적 체계와 입장을 내담자와 함께 공유하면서 충실히 내담자의 삶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의 우세한 위치를 주장하기보다 변증법적으로 주고받으며 부딪히는 이야기 가운데 내담자의 삶과 정황을 새롭게 정의하거나 반추할 수 있다. 우리가 믿고 부르는 실재란 언어적으로 창조되고 유지되는 불확실하고 희미한 세계이다. 따라서 그 실재는 언어적 활동—즉 의미의 창조와 해석—에 의해 새롭게 구성되어져 나아간다. 문제란 우리가 부딪힌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적절한 행위를 찾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담자를 그 상황과 관련된 적절한 해석적 과정으로 인도해야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의를 넘어서는 것이 가능해 진 내담자는 스스로 생성되는 언어적 창조 활동으로 문제에 대한 의미 규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V. 한국적 상황에서의 탈근대주의 논의

과연 한국의 사회사업 실천의 현재 상황에서 탈근대주의적 논의가 가능한가?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아직까지 한국의 사회사업실천은 근대주의 사상과 합리적 구조를 철저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감성적 구조가 더 지배적인 사회였다. 혈연과 지연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지닌 우리 사회 구조는 아직까지 철저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사회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사업 실천에서도 서구적인 이론과 지식은 수입되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천과 수용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였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시설 운영과 비전문적인 실천으로 사회 사업이 그 기틀을 잘 자리잡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서구의 근대주의 사상이 가진 장점

들을 살리되 우리의 실정에 맞게 토착화된 사회사업 실천을 구상해 나아가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을 위해 탈근대주의 사상이 지적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상황과 배경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사업 실천 방법론을 착안하는 데 필요하다. 지식의 창출은 우리가 처한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의 사회사업 실천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부조리와 왜곡된 감성, 관계성을 파악하고 올바른 개체의 인식, 감성과 이성이 적절히 조화된 가족과 이웃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치 중립적인 사회사업 실천보다는 적극적인 전통 도덕을 살리는 실천이 현 실정에 필요한 것 같다.

사회사업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분파주의와 대립은 바람직하지 못한 근대주의의 산물이다. 전문성의 추구하고 확장은 실제로 내담자들의 삶에 기여하는 면도 있으나 전문가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며 편파적인 사회사업 유형을 낳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주시하면서 현실에 대한 인식과 해석을 명확히 하고 사회사업 실천의 정체성과 투명성을 높여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아직도 우리의 사회 사업 실천은 지식과 현장의 철저한 괴리가 사회사업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괴리를 좁히고 실천 현장에서 연구가 실행되도록 탈근대주의 사상이 지적하고 주장하는 상황 참여적인 사회 사업 실천의 발전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낀다.

참고문헌

- 손규대. 1996, "탈근대주의와 탈식민주의 시대의 한국신학".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식민주의시대의 신학, pp. 11-48.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 Anderson, H. & Goolishian, H. 1988. "Human Systems as Linguistic Systems: Evolving Ideas about the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Family Process*, 27. pp. 371-93.
- Albee, G. W. 1970. "The Uncertain Future of Clinical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25. pp. 1071-1080.
- Flax, J. 1990. *Thinking Fragmen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oucault, M. 1989.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 Kagan Paul.

- Geertz, C. 1983. *Local Knowledge: Further Essays in Interpretive Anthropology*. New York: Basic Books.
- Gergen, K. J. 1991. *The Saturated Self: Dilemmas of Identity in Contemporary Life*. New York: Basic Books.
- Gergen, K. J. & Kaye, J. 1992. "Beyond Narrative in the Negotiation of Therapeutic Meaning". In *Therapy as Social Construction*. edited by A. Mummendy & K. J. Gergen. Newbury Park: Sage. pp. 166-185.
- Gowdy, E. A. 1994. "From Technical Rationality to Participating Consciousness". *Social Work*. 39(4). pp. 362-370.
- Hoshmond, L. T & Polkinghorne, D. E. 1992. "Redefining the science-practical relationship and professional training". *American Psychologist*. 47(1), January. pp. 55-66.
- Johnson, L. C. 1995. *Social Work Practice*, Boston: Allyn and Bacon.
- Lax, W. D. 1992. "Postmodern Thinking in a Clinical Practice". In *Therapy as Social Construction*. edited by S. McNamee & K. J. Gergen. Newbury Park: Sage. pp. 69-85.
- Lyotard, J. F. 1984.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aturana, H. & Varela, F. 1988. *The Tree of Knowledge*. Boston: New Science Library.
- Pardeck, J. T., Murphy, J. W., & Choi, J. M. 1994. "Some Implications of Postmodernism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39(4). pp. 343-346.
- Pozatek, E. 1994. "The Problem of Certainty: Clinical Social Work in the Postmodern Era". *Social Work*. 39(4). pp. 396-403.
- Rosaldo, R. 1989. *Culture and Truth: The Remaking of Social Analysis*. Boston: Beacon Press.
- Sands, R. G. & Nuccio, K. 1992. "Postmodern Feminist Theory and Social Work". *Social Work*. 37(6). pp. 489-494.
- Saleebey, D. 1994. "Culture, Theory, and Narrative: The Intersection of Meaning in Practice". *Social Work*. 39(4). pp. 351-359.